



공원에서 생활 : 대북시 공원 노숙자 및 정부 관리

황커시엔(黃克先)

대만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최근 5년사이, 노숙자 (the homeless) 가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여전히 고독하기만 하다. 이 사회의 그들에 대한 태도는 권위적인 시대 군정력의 힘을 빌어 징계하며 범죄자의 유민으로 몰아 경시하였고, 계엄 이후에는 사회정권의 힘으로 규범 이탈의 유민을 구원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이르러서는 점점 많은 인권관련의 보살핌과 비판의식의 학자 및 민간단체가 일반대중이 가담하여 노숙자의 몸에 입혀진 오명을 바꾸어 보려는 시도를 통해 평등과 이해의 각도로 유민들과 교류하고 있다. 그러나, 노숙자는 얼굴이 험상궂은 이들부터 불쌍해 보이는 사람까지 몸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여전히 고독하다. 사진작가, 기자, 비영리조직, 및 학자의 작품 중 두드러지는 노숙자, 대부분은 독신이며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찾아 볼 수 없다. 이 말은 두가지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하나는 안으로, 또 하나는 밖을 향한 사회적 관계이다. 노숙자는 모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질병, 최악의 근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점차적으로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다. 독특한 관찰 각도, 천부적인 예술적 인사들, 그러나 그들의 내부적인 이질성은 결코 드러나지 않으며, 따라서 다른 노숙자들 사이에 성립된 사회적 관계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더 많은 연구자들이 그들의 집단성과 빈번한 상호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며, (예를 들어 공원, 기차역, 사회국 등등 식사제공을 하는 교회안에서, 친숙한 그들끼리 추위에 대한 안부를 묻고 서로 간의 생활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때로 그들은 다른 거리의 노숙자들을 평가하며 또한 본인이 거하는 거리의 노숙자들의 목소리를 평가하는 것도 볼 수 있다. 더우기 위기를 만났을 때, 노숙자들 간의 도움 역시 어려움을 이기는 중요한 힘이 된다.) . 동시에, 일반적 노숙자들은 외적 사



회관계 역시 좁은 인식으로 여겨지고, 그들의 연결점을 찾아 볼 수 없다; 노숙자들은 영원히 현 거주지의 이방인이며, 침입자이고 이웃 주민들과 관계 역시 제외되고 소외당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깊이 있게 질문 해 보자. 공원의 노숙자들은 내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몇 가지의 다른 형태의 노숙자로 구분 할 수 있는가? 본인 생각에는 세가지 특별한 원인으로 관찰 할 가치가 있다. 노숙자가 형성한 다른 단체와 서로 다른 생활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일의 형태가 노숙자의 생활 형태에 깊게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력이 그들의 물질 조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알 뿐 만 아니라 존중한다는 것이다. 많은 하류층 인사들에 있어서는 일이란 단순히 월급의 출처가 될 뿐 아니라 더 깊게는 그들이 의지하는 사람들과의 교류점이 되며, 자기 자신을 끌어 올리는 효과를 주는 수단이 되고, 자신을 어려움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인생의 의미가 되도록 도우며 노숙자들의 내부 속 「동료」의 경멸로부터 분리, 선을 긋게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동, 또는 주둔 거처지 역시 주의깊게 보아야 하는 차이점이다. 이것과 그들 자신들의 심신상태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게다가 이것은 노숙자와 현 지역사회 성원들과 안정적으로 교류하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장의 지역사회의 일부분을 이야기 할 때 더 깊게 다뤄질 것이다. 이밖에, 내가 아는 바로는 「정부의 보조를 받을것인가 말것인가」이 또한 노숙자들의 생활 형태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가 된다. 그 영향력은 동일하게 물질적 측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아관에도 영향을 준다; 구제금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오명을 견디어야만 하고, 사회 복지 직원들의 복지 사기꾼이라고 의심받는것을 제외하고도 자기 자신이 동료들로부터의 그림 그림지...하는 느낌과 함께 「병법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자」(deserving poor) 중 들어서게 되는, 집단 사회 안정에 봉사에 필요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대만 노숙자 생활 형태의 분석을 살펴보면, 그들의 생활, 인간관계



가 빚어 낸 구별분석에 대해 집중하지 않았었기에 이번 연구를 통해 이러한 복지가 어떻게 노숙자들의 사회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 심도있게 토론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이미 성별은 명백한 관건이라는 것을 증명해 낸 바 있고, 노숙자 환경을 좌우하는 요소 : 국가의 사회 복지 제도 및 주류 사회 의식 형태에서 여성은 선천적으로 가정을 잘 유지하며, 다음 세대를 잘 양육 한다고 인식 되어 있으나 노숙자들이 처한 환경은 외부의 힘에 이끌린다고 여겨진다. 동시에 공공 장소에서 쉽게 상처 받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녀들을 특별히 수용기관에 안치하고, 자원협조를 제공 한다 ;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남성노숙자는 개인적인 요소가 지금의 환경에 처하도록 이끌었기에 , 따라서 더 많은 오명 아래 감당 해야하는, 도움받기에 가치가 없는 가난뱅이 (undeserving poor) 이다. 대만 역시 비슷한 인증이 발견 되었다. 이상 세가지 요인은 우리가 관찰을 시도한 다른 노숙자 형태 구분의 구분점이 된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형태의 노숙자들 간에 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한 발 더 나아가 깊이 있게 토론 해야 한다. 두가지 방향에서 이 문제가 깊이 있게 토론 되기를 바란다. 첫째, 수직 방향의 계수관계, 둘째로는 수평 측면의 네트워크 관계이다. 수직 방향의 계수 관계의 측면은 과거 도시 민족지학 연구가 자주 지적 했듯이 다른 형태의 하류계층이 보유한 자원 및 능력의 차이 (예를 들어 금전, 이동능력, 복지 정보, 노컬 연결, 사교수단 등), 사회 활동 중 생겨나는 권력계층의 높고 낮음으로 인해, 일부 노숙자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로 인해 지도자로 변환된다. 일부는 단지 명령에 따를 뿐이며, 비록 아주 일상적인 사교 대화나 활동 중 일지라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런 단계 내의 상호 작용에서 이익을 고려할 뿐 아니라 동시에 상징적 계층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존엄성의 유지 추구 시도, 남성적 기질을 나타내며, 동시에 대체 무엇이 공평이며 정의는 무엇인지, 정당하게 형성된 하나의 도덕 경제의 순서를 확인한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수평적 측면상으로는 낯설은 노숙자가 어떻게 서로 활동을 시작하는 지 관찰 할 수 있고, 어떤 채무관계 인지를 통해서 또는 선물 교환을 통해 안정적인 유동적 관계를 시도 함으로, 계속해서 사회 네트워크를 확장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알 지 못하는 상대방의 이름과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정보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교적인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지, 그들이 세운 이러한 「모두 실패자(同是天涯淪落人)」 (대만어의 「艱苦人힘겨운 사람 :간코랑」) 인간관계, 대조적으로 가족 구성원 사이, 조직 내의 동료사이, 민간 사회 성원 (예를 들어 노타리클럽) 끼리, 일상 생활 낯선 사람들 간의 연결 (ties), 또한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힘겨운 사람들의 관계, 노숙자 생활에 직면된 위기 (예를 들어 병이 났거나, 구타 당했거나, 집안 살림을 도둑맞다) 때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 외부에서 볼 때 가치가 아주 낮은 그런 종류의 취약하고 파리한,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 용품」 (disposable ties) , 거꾸로 자원 부족한 자가 절망적 환경 중 어떻게 자원 유통의 중요한 통로가 될것인가 ?

공원 내의 민족지 연구를 통하여 과거를 밝힐 수 없는 「노숙자의 외부 사회관계」 는 단순히 노숙자와 (1) 정식 제도성 네트워크, 노숙자를 지지하는 사회국 정책 정부 단위를 포함하여 비영리 조직, 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 및 관광 산업에서 노숙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정부 부처 및 지역 주민들 ; 더 중요한 것은 이전 문헌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2) 비공식적 지지 네트워크의 외적 사회 관계에는 덜 우호적인 정부 부처 및 지역 주민도 포함되며 특별히 개발지 및 관광 고려가 되는 지역이다. 이 항목은 오늘날 관찰이 더 필요한 곳이다. 보고서를 선택하여 쓰는 기간 동안 대북시 정부는 특별히 2016년 12월 20일까지 완화(萬華)지역 「행동하는 시정부 회의」 를 열어 명시아 (艋舺)공원 개조, 시장 개조 및 서구문호 (西區門戶) 의 기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룡산쓰 (龍山寺) MRT 지하도에 문화 창의 지역을 개설했다. 시장 커 원저 (柯文哲)가 말하기를, 1년 남짓의 노력으로 선이 바뀌기 시작했고 , 서



지 않는 일상 대화에서, 사실상 보이지 않는 적극적인 사회성, 즉 「운명의 짐을 내려 놓음」과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목적이 없는 사회적 상호 작용 형식인 것이다. 그리고 명시아 (艦舩) 공원의 각종 인사들과 함께 고려해야 할 —— 집은 있으나 생활 조건은 노숙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저소득 가구, 독거 노인, 깡패들, 성노동자들도 있다. 같은 형편의 특정 구조적 성폭력 상해의 「밀바닥」 또는 「버림 받은자」 (the outcast) 가 서로 다른 신분에서 어떻게 유동 하는 지를 이해하고, 노숙자 환경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으며, 또한 노숙자 주변의 저소득층 인사들과 함께 사고하며 전에는 돌아갈 집이 없었으나 현재의 유민 생활을 벗어난 사람들의 환경을 함께 생각 해 볼 수 있다.

종교는 노숙자에게 있어서 일상생활 중 자주 참여하는 일종의 사회제도이며, 동시에 대만의 맥락중 서방세계에서 나타나는 상황과 매우 다른 특색을 나타낸다. 서방에서 볼 수 있는 제도의 종교와 비교 해 보면, 이 공원에는 생활 속에 깊이 있게 박혀 있는 확산적 종교 (diffused religion) ——민속 신앙 ——이런 신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계를 맺도록 한다. 이러한 신앙은— 실제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노숙자들은 항상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돈을 벌고 (예를 들면 종교 행사장에서 변장하여 참여하는 것, 법회 장소 장식을 돕는것) , 이런 종류의 일은 그다지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의 하나이므로 신체나 정신적 능력이 일반인 같지 않다 하더라도 참여 할 수 있다 ; 이런 종교성의 일들과 다른 세속적 일들이 노숙자들에게 있어서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동시에 이런 단체 내에 참여 함으로 「생동력 넘치는」 집단 분위기 속에, 노숙자들이 물질적 댓가를 뛰어 넘는 영향을 받는것은 아닌지, 심지어 사회 주민과 그들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은 아닐까 ? 둘째로, 노숙자가 필요한 음식이나 일상 용품 제공 한다 : 내 생각에는 이런 제공은 제도적 종교의 종교 방식에 무척 맞지 않는다고 본다. 먼저 성전주도의 자선 구제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구제자로 하여금 덜 모욕스럽고 징계 받는 힘을 적게 느낀다. 그리고 민간 신앙



구제에서 신자들은 더 높은 자발성을 나타내어 자발적으로 중재조직 (mediation) 을 제거하고자 하려는 경향이 명백하다. 그들은 자주 가난하고 힘든 중생들이 모인 곳에 와서 물자를 두는데 이것은 성직자들 또는 조직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신앙인들이 어떤 교리나 모범이 되는 부르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인 또는 3~5 명이 조를 이루어 이런 종류의 물질을 나누는데 「성공의 중요성은 실제 성과보다 훨씬 크다」, 중요한 것은 집이 없는 것을 해결하는 문제보다, 그들 자신의 선이 실현 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기에 구제품이 어려운 자의 손에 들어가는 지 아닌 지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덕을 쌓고, 「선을 심고 (種福田)」 또는 「공덕이 돌아오는 (功德迴向)」는 효과로 가족이 복을 받는다고 여긴다. 이런 종류의 돕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는 위에서 설명한 제도적 종교의 것과 상당히 다르고, 둘 사이의 차이는 비교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노숙자들에게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마지막으로 노숙자들이 추구하는 생활의 목적과 생명의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 노숙자가 상대적으로 갖는 고독, 낮은 안전감, 물질궁핍, 무시당함, 주류 사회가 소위 말하는 「희망」 결핍의 환경속에서, 어떻게 생활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들은 다른 세속적 (other-worldly) 의 종교성 「보상」을 기대하는 것일까, 아니면 민간 신앙 중의 어떤 이념, 이야기, 논술을 협조로 그들의 정합해 낸 당시의 정황에 깊은 의미를 두는 것인가? 이런 종류의 종교로 시작 된 개인적 반성은, 또 어떻게 그들의 일상 논리와 인간관계에 반영 될 것인가? 이상의 문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이 있게 물어 볼 필요가 있다.